

[우리 소설 우리말]

## ‘황진이’의 서울 나들이

---

민충환

부천대학교 교수

### 1

최근 남북 간에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문화 등 여러 부문에 걸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 여름에는 남북 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작가 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 홍석중의 북한 소설 ‘황진이’가 직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불원간 남한에서도 출간된다고 한다. 각 언론기관에서는 이를 관심 있게 보도한 바 있다.

‘황진이’는 누구인가? 우리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류 시인으로, 교만과 위선에 빠져 있던 당대인들을 저만치 발아래 두고 농락하던 기녀가 아니던가. 그녀가 50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다는 것이다.

### 2

이 소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황진이’는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기녀의 극적인 삶에 더하여 머슴 ‘놈이’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작품은 종래 북한 소설이 지닌 이념적이고 투쟁 일변도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진이는 달빛 속에 누워 있었다. 굳은살이 박힌 놈이의 거친 손이 그의 부드러운 살결을 쓰다듬으며 점점 아래로 내려왔다. 진이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입에서 신음 소리가 저절로 새어 나왔다. 문득 가슴이 무거워졌다. 무섭게 홑뜬 놈이의 두 눈이 이글거리는 숯불덩이가 되어 자기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순간 진이는 아, 하는 비명 소리를 지르며 눈을 감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 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러한 성애(性愛) 장면이 우리 소설에서는 별로 낯설지 않다. 하지만 북한 작품에서는 일찍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곧바로 북한 문학 전체의 현상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변화의 한 징후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작가는 전작(前作) ‘높새바람’에서 우리말을 풍요롭게 구사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태도가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충남이가 동문을 나서서 천수사 절터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해가 한낮에 가까운 때라 밝은 봄별은 **쟁글거리고** 고운 잔디의 햇풀은 **과랑게 반드러웁고** 잔잔히 흐르는 시내물은 부서지는 햇빛에 눈이 부셨다.

봄별이 ‘쟁글거리고’는 ‘바람이 없는 날씨에 햇별이 따스하게 계속 내리 쬐고’이고, ‘반드러웁고’는 ‘윤기가 나도록 매끄럽고’라는 뜻이다.

한편 정확한 묘사를 위해서 ‘눈[目]’의 경우 여러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메밀눈:** 작고 세모진 눈.

**갈고리눈:** 눈꼬리가 위로 꺾져 올라간 눈.

**거적눈:** 윗눈시울이 축 처진 눈.

**까막눈:**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눈.

**달팽이눈:** (편잔을 받거나 겁이 나서) 움찔하고 기운을 펴지 못하는 눈.

**뺨눈:** 독살스럽게 생긴 눈.

**실눈:** 가늘고 작은 눈.

**황소눈:** 크고 부리부리한 눈.

이같이 다양한 눈을 그려내어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겠다. 우리말 어휘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 본다(편의상 ‘ㄱ’ 항목에 한함. 이하 같음).

**가드라들다:** 뺨뺨하게 되면서 오그라들다.

**가로궤지다:** 말이나 행동이 비뚤어지고 틀어지다.

**가리를 틀다:** 잘되어 가는 일을 안되도록 방해하다.

**가리산지리산:** 이야기나 일이 질서가 없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을 이룸.

**가리새:** 일의 갈피와 조리.

**가살:** 교활하고 알미운 태도.

**가스락물:** ‘낙숫물’의 북한어.

**가슴치기:** 사람의 가슴 부분에 이르는 높이.

**감질:** 어떤 일을 몹시 하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

**감쪼오다:** 글이나 물건 따위를 윗사람이 살펴볼 수 있게 하다.

**갑자르다:**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거북하여 주저하며 킁킁거리다.

**갓철대:** 갓양테의 테두리에 둘러댄 테. 철대.

**강구다:** 주의하여 듣느라고 귀를 기울이다.

**개구장마누라:** 입이 걸고 행실이 더러운 여편네.

**개합바라기:** 저녁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 어둠별.

**거쿨지다:** 몸집이 크고 말이나 하는 것이 씩씩하다.

**결구:** 새끼를 낳은 뒤의 암태지.

**결탐스럽다:** 무엇을 받아들여려는 의욕이 강한 데가 있거나 몹시 강하다.

**검덕귀신:** 몸이나 얼굴, 옷 따위가 몹시 더러운 사람을 낮잡아 이름.

**검실검실하다:** 군데군데 약간 거무스름하다.

**검측스럽다:** 음침하고 욕심이 매우 많은 데가 있다.

**계정:** 불평을 품고 떠드는 말과 행동.

**결꼭하다:** 얼굴 생김새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여무져서 빈틈이 없다.

**결말:** 같은 집단의 사람들끼리 사물을 바로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빗대어 하는 말.

**고드래뿔:** 하던 일이 다 끝남을 구어적으로 이름.

**고추상투:** 늙은이의 조그만 상투.

**곰팡순갈:** 자루가 짧은 순가락.

**괴알수염:** 귀알수염. 술이 많고 귀알처럼 길게 드리운 수염.

**구메밥:** 예전에, 옥에 갇힌 죄수에게 벽 구멍으로 몰래 들여보내던 밥.

**구순하다:** 사귀거나 지내는 데 말썽이 없고 의가 좋다.

**군잠:** 깊이 든 잠.

**궁글다:** 소리가 웅송글다.

**귀양다리:** 귀양살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름.

**그루박다:** 사람을 기를 펴지 못하게 억누르다.

**그물그물:** 연기 따위가 천천히 자꾸 움직이는 모양.

**그존하다:** 빠짐없이 충분히 다 갖추어 놓다.

**근감하다:** 근검하다. 마음에 흐뭇하고 남보기에 굉장하다.

**기이다:** 어떤 일을 숨기고 바른대로 말하지 않다.

**길래:** 오래도록 길게.

**길목:** 길목버선. 먼 길을 갈 때 신는 허름한 버선.

**까박까박:** 눈을 자꾸 약간 힘 있게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까부장하다:** 조금 까부라져 보이다.

**깍지동:** 깍짓동. 쿵이나 팔의 깍지를 줄기가 달린 채로 묶은 큰 단을 뜻하는 말로, 몹시 뚱뚱한 사람의 몸집을 비겨 이르는 말로 쓰임.

깨도: 깨달음.

깨성: ‘소복(蘇復)’의 북한어. ‘소복’은 원기가 회복되게 함.

꼬리잡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지어 섬.

꼬물: 아주 조금.

꽂지벌레: 성질이나 행동이 못된 사람을 비겨 이름.

끼끗하다: 생기가 있고 끼끗하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속담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량반은 물에 빠져두 개혜염은 안친다지 않습니까?”

“개혜염? 원 공연한 소리로다. 이 사람아,

열흘 굶은 군자가 없다네. 지금 당장 칼 물구 뽀뽀기를 하셔야 할 사또께서  
무슨 경황에 이 체면 저 체면을 가리신단 말인가.”

……(중략)……

입가에 감돌던 웃음기가 씻은듯부신듯 사라지고 표정이 자못 진중해졌다.

“그거 보라구. 세상에 제일 믿기 어려운게 떠도는 소문이야. 원래 고운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는 법이라네.”

짤막한 예시문에 무려 다섯 개의 속담이 나온다. 이 중 ‘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다’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주요 속담을 보자.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께 / 가렛장부는 동네 존위도 모른다

가물철 수숫잎 꼬이듯 / 갑작 사랑 영이별

개구멍으로 통량갓을 굴러 내다 / 개 대가리에 뿔

개뼈다귀에 은 올린다 / 개입에서 상아는 자라지 않는다

개천 치다 금을 줍는다 / 개털에 벼룩 끼듯

개 팔아 두 냥 반 소 팔아 세 냥 반 / 개하고 똥 다투라  
 거등에 망아지 따라다니듯 / 거미줄 따르듯  
 젖섬 털듯 / 계집의 곡한 마음 오뉴월에 서리 친다  
 고기그물에 기러기가 걸린다 /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고양이 손발이라도 빌려준다 / 고자가 뭐인지 까마귀가 뭐인지 모른다  
 고자리 쭈시듯 / 꽃감죽을 먹고 엿목판에 엮드려졌다  
 구렁이 개구리 녹이듯 / 구운 계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굴뚝에 불을 댔다 / 굴에 간 어미 기다리듯  
 굶고고기를 먹은 것 같다 / 귀신은 경으로 떼고 도깨비는 방망이로 댔다  
 그 식이 장식이라 / 글에 미친 송생원  
 금쟁이 금 불리듯 / 기름 앞지르고 깨를 줍는다  
 기생 환갑은 서른 / 까마귀 똥 잡을 계교  
 까치 배때기 같이 흰소리한다 /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내린다

여기에 더하여 한자 성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우리말 사용을 장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이 한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글 전용만으로는 의미 표현에 일정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            |            |            |            |
|------------|------------|------------|------------|
| 가가대소(呵呵大笑) | 가가호호(家家戶戶) | 감개무량(感慨無量) | 감구지회(感舊之懷) |
| 객반위주(客反爲主) | 견물생심(見物生心) | 결자해지(結者解之) | 경경불매(耿耿不寐) |
| 경경일념(耿耿一念) | 경국지색(傾國之色) | 경향각처(京鄕各處) | 고대광실(高臺廣室) |
| 고립무원(孤立無援) | 고저강약(高低強弱) | 고저장단(高低長短) | 광대무변(廣大無邊) |
| 구곡간장(九曲肝腸) | 구구소회(區區所懷) | 구십춘광(九十春光) | 구척장신(九尺長身) |
| 규중처녀(閩中處女) | 규중처자(閩中處子) | 근검절약(勤儉節約) | 금상첨화(錦上添花) |
| 금시초문(今時初聞) | 금지옥엽(金枝玉葉) | 기거동작(起居動作) | 기고만장(氣高萬丈) |
| 기근구조(饑饉救助) | 기상천외(奇想天外) | 기예취재(技藝取才) | 기왕지사(既往之事) |
| 기절초풍(氣絕一風) | 길흉화복(吉凶禍福) |            |            |

### 3

지금까지 ‘황진이’에 나타난 우리말 어휘와 속담, 그리고 한자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우리말의 보고라 일컬어지는 ‘임꺽정’을 보는 듯하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홍석중은 벽초 홍명희의 손자이자, 국어 학자인 홍기문의 아들이다. 명망 있는 문학 일가에 걸맞은 민족어에 대한 깊은 사랑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홍석중은 어릴 적부터 ‘임꺽정’을 끼고 다녔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모쪼록 ‘황진이의 서울 나들이’가 북한 문학의 폭넓은 이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